

심층분석보고서

26하_현대차증권_재무

마감일: 8월25일11시00분

| 노영우 컨설턴트 & 취업 플랫폼 '룩센트'

■ Executive Summary

이 보고서는 2026년 중반 시점을 기준으로 현대차증권의 재무 직무, 그중에서도 자금결제와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실무 영역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산업, 경쟁 지형, 회사, 조직문화, 직무의 다섯 영역을 차례로 다루며, 각 영역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과 수치를 근거로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지금 증권업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2026년 1분기 국내 증권사 61곳의 당기순이익은 4조3,271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2조 4,428억원 대비 77.1% 늘었고, 직전 분기 1조8,606억원과 비교하면 132.6% 증가했습니다. 이 한 분기의 이익이 2025년 연간 순이익 9조6,455억원의 44.9%에 해당합니다. 실적을 끌어올린 것은 브로커리지입니다. 1분기 수탁수수료가 4조3,020억원으로 165.8% 급증했고, 대체거래소를 포함한 유가증권시장 분기 거래대금은 2,775조원으로 전년 동기 641조원의 4.3배에 달했습니다. 반면 기업금융 부문 수수료는 9,445억원으로 전년과 거의 같았습니다. 증권사 자산 규모는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고, 평균 순자본비율은 999.5%, 평균 레버리지비율은 718.3%를 기록했습니다.

이 호황에는 뚜렷한 그늘이 있습니다. 2026년의 거시 환경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함께 작동하는 국면입니다. 국내 기준금리는 하반기 중 두 차례 인상 가능성이 우세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국고채 10년물은 4% 초반을 오가며 상방 위험이 우세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요 금융기관이 1,420~1,520원 범위를 하반기 전망 밴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 증권사는 채권 평가손실과 조달비용 상승을 함께 떠안습니다. 브로커리지 편중 구조에서 거래대금이 꺾이면 중형사가 먼저 흔들립니다.

규제도 크게 바뀝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5월 유동성비율 규제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서 전체 49개 증권사로 넓히고, 위기 상황의 현금화 가능성을 반영한 신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유동자산에는 자산별 할인율이 붙고, 유동부채에는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가 더해집니다. 지금까지 간접 규율을 받아 온 현대차증권 같은 중형사가 이 개편의 실질적 대상입니다. 재무 부서가 다루는 숫자의 무게가 한 단계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현대차증권은 자기자본 1조4천억원대의 중형사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준인 3조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 같은 대규모 저비용 조달 수단을 쓸 수 없고, 회사채와 후순위채,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 같은 전통적 수단으로 자금을 맞춰야 합니다. 조달비용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대형사보다 크고, 그래서 신용등급 방어가 곧 수익성 방어가 됩니다. 회사는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AA- 안정적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말 순자본비율 564.6%, 조정 영업용순자본비율 241.5%로 규제 기준을 크게 웃돕니다.

회사의 최근 궤적은 회복과 부담이 겹칩니다. 2025년 3월 유상증자로 1,620억원을 확보해 상환전환우선주를 조기상환했고, 2025년 연간 당기순이익은 577억원으로 전년 362억원

대비 59.7% 늘었습니다. 2026년 1분기에는 매출액 8,478억원, 영업이익 323억원, 당기순이익 266억원으로 각각 99.3%, 19.2%, 37.9% 증가했습니다. 반면 요주의이하자산은 2026년 1분기 3,976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33.3% 늘었고, 이에 대응하는 총당금 커버리지는 27.1%로 낮아졌습니다. 한국신용평가가 산정한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자기자본의 87% 수준으로, 2025년 하반기 평가 당시 78%보다 높아졌습니다. 회사가 별도로 제시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익스포저 비율은 2025년 말 38.3%에서 2026년 상반기 말 30.8%로 낮아졌는데, 두 수치는 산정 범위가 다릅니다.

퇴직연금에서는 구조 문제가 드러납니다. 2026년 1분기 말 적립금 18조8,551억원으로 증권사 4위를 지켰지만,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증권사 14곳 가운데 유일하게 전분기 대비 적립금이 줄었습니다. 확정급여형이 15조5,029억원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계열사 물량 비중은 75.5%입니다. 확정급여형만 놓고 보면 2026년 6월 말 15조5,326억원으로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지만, 그 안에서 그룹 계열 물량이 80%를 넘습니다.

인재상 부분은 최신성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그룹 핵심가치인 고객 최우선, 도전적 실행, 소통과 협력, 인재 존중, 글로벌 지향의 다섯 항목을 바탕으로, 그 위에 일하는 방식으로 Hyundai Way 열 가지를 정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 가지는 최고 수준의 안전과 품질, 집요함, 시도와 발전, 민첩한 실행, 협업, 회복탄력성, 다양성 포용, 전문성, 윤리준수, 데이터 기반 사고입니다. 다섯 항목만 인용하고 열 가지 실행 원칙을 빠뜨리면 현재 체계를 절반만 본 셈입니다.

직무 측면에서 이 자리는 회사의 결제와 유동성을 지키는 실무입니다. 한국은행 금융망을 통한 거래결제, 원화와 외화 입출금 및 계좌 관리, 금융기관 계약 관리와 협의, 신용평가사를 비롯한 유관기관 대응이 네 가닥의 업무입니다. 각각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흐름을 이룹니다. 결제가 밀리지 않도록 일중 자금을 맞추고, 그 과정에서 규제비율을 지키며, 조달비용을 낮추고, 그 결과를 신용평가사에 설명해 등급을 지키는 순환입니다. 2026년의 고금리와 고환율, 2027년 시행을 앞둔 유동성 규제 개편, 해외주식 결제주기 단축이 이 순환의 난이도를 함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 1장: 산업(섹터) 분석

● 1-1. 2026년 상반기 증권업이 서 있는 자리

2026년의 증권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이익의 성분은 가장 취약한 쪽으로 쏠려 있는 국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 잠정치를 보면, 증권사 61곳의 당기순이익은 4조3,271억원입니다. 전년 동기 2조4,428억원과 견주면 1조8,843억원, 비율로는 77.1% 증가했고, 직전 분기 1조8,606억원과 견주면 2조4,665억원, 132.6% 증가했습니다. 자기자본이익률은 4.3%로 전년 동기 2.7%보다 1.6% 포인트 올랐고, 2025년 4분기 1.9%와 비교하면 2.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익의 성분을 뜯어보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1분기 수수료수익 6조6,929억원 가운데

수탁수수료가 4조3,020억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조6,835억원, 165.8% 늘어난 금액으로, 수수료수익 증가분의 대부분을 이 항목이 만들었습니다. 자산관리 부문 수수료는 6,721억원으로 89.4% 늘었습니다. 반면 기업금융 부문 수수료는 9,445억원으로 전년 동기 9,437억원과 사실상 같았습니다. 자기매매 손익은 4조1,026억원으로 30.8% 증가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크게 올랐음에도 자산배분 조정과 주식 평가이익 덕분에 운용수익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구조가 무엇을 뜻하는지 짚어야 합니다. 수탁수수료는 거래대금에 비례하는 항목입니다. 대체거래소를 포함한 1분기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2,775조원으로 전년 동기 641조원의 4.3배가 되었습니다. 거래대금이 이 수준에서 유지되지 않으면 수탁수수료는 같은 속도로 줄어듭니다. 기업금융이 제자리걸음을 한 상태에서 브로커리지가 이익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이익이 시장 환경에 의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환율과 시장금리 상승을 들며 수익성과 건전성 추이를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무 지표는 양호합니다. 2026년 3월 말 증권회사 평균 순자본비율은 999.5%로 2025년 말 914.6%보다 84.9%포인트 올랐고, 모든 증권사가 규제 기준인 100%를 넘겼습니다. 평균 레버리지비율은 718.3%로 2025년 말 693.7%보다 24.6%포인트 상승했지만 규제 상한 1,100% 안에 머물렀습니다. 증권사 자산 규모는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익이 쌓이고 자산이 커지는 국면에서 자본 지표가 함께 개선된 것입니다.

● 1-2. 증권업의 정의와 다섯 갈래 수익 구조

용어부터 풀겠습니다. 증권업, 법률 용어로는 금융투자업은 자본이 필요한 쪽과 자본을 굴리려는 쪽을 이어 주는 산업입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아 대출로 내보내며 자금을 중개합니다. 증권사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만들어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게 만듭니다. 은행 방식이 물류센터를 거치는 유통이라면, 증권 방식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장터에서 만나는 유통에 가깝습니다. 증권사는 그 장터를 운영하고, 물건을 대신 팔아 주고, 때로는 스스로 물건을 사고팝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의 여섯 종류로 나눕니다. 우리가 증권사라고 부르는 회사는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중심에 두고 여러 인가를 함께 보유한 종합 금융투자회사입니다. 이 산업이 왜 중요한지는 명확합니다. 기업이 은행 대출에만 의존하면 경기가 나빠질 때 자금줄이 한꺼번에 마릅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조달 경로가 살아 있으면 그 충격이 분산됩니다. 그리고 그 경로를 유지하는 실무가 증권사의 일입니다.

수익은 다섯 갈래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브로커리지, 우리말로 위탁매매입니다.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팔 때 증권사가 중개하며 받는 수수료입니다. 부동산 중개소가 집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을 이어 주고 중개보수를 받는 구조와 같습니다. 이 산업에서 브로커리지는 가장 오래되고 진입장벽이 낮은 수익원인 동시에 거래대금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항목입니다. 현대차증권 같은 중형사에게 브로커리지는 기반 수익이지만, 온라인 강자와 대형사에게 점유율을 잃기 쉬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이자손익입니다.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신용거래융자 이자,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운용해 얻는 수익이 여기 들어갑니다. 금리가 오르면 융자 이자 수입이 늘지만 조달비용도 함께 올라, 순이자마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셋째는 기업금융입니다. 기업의 주식 발행, 회사채 발행, 인수와 주선, 인수합병 자문, 구조화금융,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에서 나오는 수수료입니다. 건당 금액이 크지만 딜이 성사되어야 수익이 잡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큼니다.

넷째는 트레이딩과 자기매매입니다. 회사 자기 돈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외환을 운용해 얻는 손익입니다. 시장 방향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갈립니다. 현대차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을 전액 백투백헤지 방식으로 운영해 자체헤지 노출을 두지 않는 보수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자기자본투자 규모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자산관리입니다. 펀드, 랩, 신탁, 퇴직연금을 팔고 관리하며 받는 보수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잔고가 변하긴 하지만 브로커리지보다 훨씬 안정적인 흐름을 만듭니다. 현대차증권이 퇴직연금에서 확보한 위치가 바로 이 항목의 기반입니다.

● 1-3. 자기자본 계단 구조: 3조·4조·8조원이 갈라놓은 리그

이 산업을 이해하려면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할 수 있는 사업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기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회사 자기 몫의 밑천입니다. 식당에 비유하면 임대보증금과 주방 설비, 초기 운영자금을 자기 돈으로 얼마나 댔는지에 해당합니다. 금융당국은 이 밑천 규모에 따라 영업 범위를 다르게 허용합니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이면서 금융위원회 지정을 받으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됩니다.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그러니까 기업 대출 업무가 열립니다. 2026년 기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10 개사입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면 초대형 투자은행 지정 자격이 생기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발행어음을 찍을 수 있습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어음으로, 자기자본의 두 배까지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예금을 받아 자금을 확보하듯, 초대형 투자은행은 발행어음으로 시장에서 낮은 비용의 자금을 대규모로 끌어옵니다. 이 차이가 조달금리 격차로 나타나고, 다시 수익성 격차로 이어집니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이면 종합투자계좌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고객이 맡긴 자금을 통합 운용해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이며, 원금 지급 성격을 지닙니다. 2025년 이후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인가 절차를 밟았고, NH투자증권도 신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자기자본은 2025년 6월 별도 기준으로 1조4,145억원 수준이며, 유상증자와 이익 누적을 거쳐 1조5천억원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3조원 문턱과의 간격이 상당합니다. 이

사실이 재무 직무에 갖는 의미는 큼니다. 발행어음이라는 저비용 대량 조달 통로가 없으므로, 회사채와 후순위채,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을 조합해 자금을 맞춰야 합니다. 각 수단의 금리와 만기, 시장 상황을 매일 저울질하는 일이 곧 재무 부서의 일상이 됩니다. 대형사에서는 발행어음 창구가 완충 장치 역할을 하지만, 중형사에서는 조달 담당자의 판단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 1-4. 가치사슬과 자금의 순환: 조달에서 결제까지

증권업의 가치사슬은 자금 조달, 상품과 서비스 생산, 유통과 판매, 결제와 정산으로 이어집니다. 재무 부서는 이 사슬의 맨 앞과 맨 뒤를 함께 담당합니다. 사슬의 가운데인 영업 부문이 눈에 띄는 활동을 한다면, 재무는 그 활동이 가능하도록 앞뒤를 잡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려 보겠습니다. 기업금융 부문이 어떤 사업장에 500억원을 집행하기로 결정하면, 그 500억원이 약정한 날짜에 상대방 계좌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금이 회사 안에 그대로 놓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재무 부서는 며칠 전부터 자금 계획을 세워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나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당일 한국은행 금융망을 통해 결제를 실행합니다. 반대로 리테일에서 고객 매매가 폭증하면 결제대금이 대규모로 오갑니다. 이 흐름이 하루라도 어긋나면 회사의 결제 신뢰가 훼손됩니다.

이 사슬에서 이익이 가장 많이 남는 지점, 즉 핵심 수익 지점은 시기마다 이동합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주선과 대출이 그 자리였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그 자리가 손실 원천으로 뒤집혔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는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로 무게가 옮겨 갔습니다. 재무 부서 입장에서 이 이동은 자금 수요의 성격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부동산금융이 활발하면 대규모 목돈이 특정 시점에 나가고, 브로커리지가 활발하면 결제대금이 매일 크게 오갑니다. 자금 계획의 결이 달라집니다.

● 1-5. 거래 인프라의 이원화: 넥스트레이드가 바꾼 시장 지형

2025년 3월 4일,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체거래소는 정규 거래소가 아니면서 주식 매매체결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고 부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코스콤, 주요 증권사, 정보기술 기업 등 34개사가 함께 출자해 설립했습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투자자가 주문을 내면 증권사 시스템이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운데 더 유리한 곳으로 주문을 보냅니다. 이 기능을 최선주문집행 또는 주문분배 기능이라 부릅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프리마켓, 메인마켓, 애프터마켓을 운영해 거래 시간을 늘렸습니다.

시장 반응은 빨랐습니다. 2025년 한 해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량은 5억1,800만주였고, 그중 넥스트레이드가 8,700만주로 16.8%를 차지했습니다.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전체 일평균 16조 9,000억원 가운데 넥스트레이드가 5조3,000억원, 31.4%를 담당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8월 평균 거래대금 기준 넥스트레이드 점유율이 31.9%로, 일본의 대체거래소 세 곳을 합친 점유율 9.8%의 세 배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대체거래소 거래량에 한도를 둡니다. 시장 전체로는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 이하, 개별 종목은 30% 이하가 기준입니다. 이 한도 때문에 넥스트레이드는 2026년 2월 12일부터 거래 대상 종목을 700개에서 650개로 줄였습니다. 코스피 375종목과 코스닥 325종목이던 구성이 코스피 360종목과 코스닥 290종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거래한도 규제를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 변화가 재무 직무에 미치는 영향은 결제 흐름의 복잡화입니다. 체결 장소가 둘로 나뉘면 정산과 결제 경로도 그만큼 세분됩니다. 거래 시간이 오후 8시까지 늘어나면 자금 관리 시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겉으로는 거래소 이야기지만, 그 결과는 뒷단 결제 실무의 부담으로 나타납니다.

● 1-6. 규제 지형의 재편: 유동성 규제 전면 확대와 신조정유동성비율

2026년 증권업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유동성 규제 개편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5월 18일 금융투자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예고했고,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2022년 9월 말 강원도 레고랜드 관련 채무 문제로 단기자금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증권사들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 차환 발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증권금융과 산업은행 등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급히 가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각 증권사가 보고한 유동성비율은 지표상 100%를 넘고 있었습니다. 지표는 괜찮다고 말하는데 현실에서는 돈이 돌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이번 개편의 목적입니다.

현행 체계에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개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13개사에만 1개월과 3개월 유동성비율을 각각 100%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나머지 증권사는 3개월 유동성비율과 조정유동성비율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간접 규율을 받아 왔습니다. 개정안은 이 의무를 전체 49개 증권사로 넓힙니다. 외국계 지점 12개사는 중개와 자문 위주로 유동성 위험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제외됩니다.

산정 방식도 정교해집니다. 분자인 유동자산에는 위기 시 가격 하락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국공채와 특수채, 은행채, AAA등급 채권, 실물형 국공채 상장지수펀드는 0%, AA 등급 채권은 7%, A등급 이하 채권은 10%, 주식과 외화증권, 개방형 펀드, 상장지수펀드는 15%, 합성형 상장지수펀드는 30%입니다. 주식 할인율은 최근 10년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월간 최대 하락률을, 채권 할인율은 2022년 하반기 시장경색 당시 지수 하락률을 참고했습니다.

분모인 유동부채에는 채무보증 같은 우발채무를 더합니다. 우발채무는 차환발행증권과 대출·출자 약정 등으로 나누고, 차환발행증권은 증권사 단기신용등급에 따라 A1이면 16%, A2 이하이면 60%를 적용하되 해당 증권사의 과거 1년 평균 채무보증 이행률과 비교해 높은 쪽을

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부채는 담보증권을 보유했는지 차입했는지, 담보가 AA등급 이상 채권인지에 따라 0%에서 100%까지 유출률을 적용합니다. 증권대차거래 부채는 담보자산 종류별 유출률을 가중평균해 회사별로 산출하며 15%에서 100% 범위입니다. 펀드 자산은 개방형이면 실제 환매 기간을, 부동산펀드 같은 폐쇄형이면 잔존 만기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투자 관련 순자본비율 위험값 강화와 총 투자한도 신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자본규제 도입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이 개편이 현대차증권 재무 직무에 갖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지금까지 간접 규율 대상이던 회사가 2027년부터 준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보유 자산 구성을 할인율 관점에서 다시 보고, 우발채무를 유동부채에 더한 상태에서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AA 등급 비중이 높으면 7% 할인이 붙고, A등급 이하면 10%가 붙습니다. 자금 담당자는 이제 조달금리뿐 아니라 규제 산식상의 자산 등급 구성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 준비 기간이 곧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초까지이고, 그 준비의 상당 부분이 재무 부서 몫입니다.

● 1-7.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이클의 잔불

프로젝트파이낸싱은 사업 자체의 미래 수익성을 보고 자금을 대는 방식입니다. 일반 대출이 빌리는 사람의 재산과 신용을 보는 반면, 프로젝트파이낸싱은 그 사업이 완성됐을 때 벌어들이 돈을 봅니다. 아파트 분양 사업이라면 분양이 잘될지가 상환 능력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수익성이 뛰어나지만, 분양이 막히면 상환 자원 자체가 사라집니다.

브릿지론은 그 앞 단계입니다. 토지를 사고 인허가를 받는 초기 단계에서 짧게 빌리는 자금으로, 본 프로젝트파이낸싱이 나오면 그 돈으로 갚습니다. 다리를 놓듯 시점을 잇는다는 뜻입니다. 본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브릿지론은 갈 곳을 잃습니다. 2022년 이후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바로 이 구간에서 부실이 터졌습니다.

증권사들은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했고, 여러 중형사가 실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 접어들며 충당금 부담은 완화됐지만 완전히 끝난 사안은 아닙니다. 지방과 비아파트 사업장, 분양률이 낮은 현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증권사 기업금융 수수료가 전년과 같은 수준에 머문 데에는 이 잔불이 작용했습니다.

재무 직무 관점에서 부동산 익스포저는 두 가지 경로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는 우발채무입니다. 채무보증 형태의 익스포저가 크면 새 유동성 산식에서 유동부채가 늘어납니다. 다른 하나는 신용평가입니다. 신용평가사는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와 요주의이하자산, 충당금 적립 수준을 등급 판단의 핵심 항목으로 봅니다. 이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 재무 부서의 업무입니다.

● 1-8. 퇴직연금 시장의 구조 변화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적립금 운용 책임을 지고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정해진 금액을 넣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결과를 가져갑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계좌를 열어 추가로 적립하고 운용하는 유형입니다.

이 구분이 증권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영업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 대 회사 영업입니다. 대기업 한 곳을 유치하면 수조원 단위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룹 계열사가 있다면 그 물량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반면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은 개인 고객을 한 명씩 모아야 합니다. 수익률과 상품 라인업, 앱 편의성이 승부처가 됩니다.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국내 퇴직연금 사업자 43곳의 적립금은 553조8,949억원으로 전년 대비 24.3%, 금액으로 108조2,665억원 늘었습니다. 증권업권 적립금은 165조원 규모로 확대됐고, 미래에셋증권은 51조원을 기록하며 은행권 일부를 제치고 전 금융권 4위에 올랐습니다.

자금이 은행과 보험에서 증권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실물이전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입자는 보유 상품을 팔지 않고 사업자를 바꿀 수 있게 됐고, 디폴트옵션 제도로 방치되던 자금이 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 중심의 개인 운용 수요가 커지면서 증권사들은 퇴직연금을 장기 고객 기반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현대차증권의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확정급여형에서는 여전히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지만, 개인 고객 기반이 얇아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 확대가 더딥니다. 2026년 1분기에는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증권사 14곳 가운데 유일하게 적립금이 줄었습니다.

● 1-9. 디지털 전환: 토큰증권, 예금토큰, 프로젝트 한강

2026년 자본시장의 기술 의제는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첫째, 토큰증권입니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이나 미술품, 지식재산권처럼 잘게 나누기 어려웠던 자산을 조각내 거래할 길을 엽니다. 관련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보스턴컨설팅그룹 전망을 인용해 국내 토큰증권 시가총액이 2024년 34조원에서 2030년 367조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이는 전망치이며 실현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둘째, 예금토큰과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입니다. 한국은행은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이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시중은행이 이를 바탕으로 예금토큰을 발행해 일반 이용자가 결제에 쓰는 구조입니다. 1단계 실거래 테스트에서는 전자지갑 기준 8만1,000명이 참여해 11만4,880건을 거래했습니다. 2026년 3월 2단계 추진이 발표됐고, 참여 은행이 기존 7곳에서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가 합류해 9곳으로 늘었습니다. 2단계에서는 예금토권을 활용한 국고보조금 집행도 추진합니다. 예금토권은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사용처와 사용 기한, 지출 조건을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재직 시절부터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권 결합 구조를 연구해 온 신현송 총재가 2026년 4월 21일 취임하면서 이 방향은 정책의 중심에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원화 스테이블코인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예금토권 기반 인프라가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수탁과 상환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증권사가 토큰증권과 실물자산 토큰화에 무게를 두는 역할 분담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재무 직무 관점에서 이 흐름은 아직 먼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제 인프라가 바뀐다는 점에서 결국 자금 실무와 이어집니다. 결제 수단과 결제 시점, 결제 원장이 달라지면 자금 계획의 전제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지켜보는 단계지만, 향후 몇 년 안에 실무 절차로 내려올 의제입니다.

● 1-10. 거시 변수의 작동 경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2026년의 거시 환경은 앞선 몇 해와 다릅니다. 신용평가업계는 2026년 상반기를 두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겹친 도전적 환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금리부터 보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26년 하반기 금융시장의 핵심 변수로 인플레이션 경로와 통화정책 기대의 재조정을 꼽았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높아진 미국의 물가 불확실성이 연준의 정책금리 기대를 흔들고, 달러화 경로를 통해 장기금리와 환율의 상방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4% 초반을 오갈 것으로 예상되나 상방 위험이 우세합니다. 국내 기준금리는 하반기 중 두 차례 인상 전망이 우세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금리가 오르면 증권사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보유 채권 가치가 떨어져 평가손실이 발생합니다. 동시에 회사채나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할 때 물어야 하는 이자가 올라 조달비용이 커집니다. 신용용자 이자 수입은 늘지만, 조달비용 상승분을 상쇄하고도 남을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자금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달 만기를 어떻게 배치할지가 손익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보면 지금 장기물로 고정해 두는 편이 낫고, 곧 안정될 것으로 보면 짧게 굴리며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이 판단이 매 순간 요구됩니다.

환율은 다른 경로로 작동합니다. 2026년 6월 시점 주요 금융기관의 하반기 원/달러 전망 밴드는 1,420원에서 1,520원 수준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 축소와 사상 최대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해외 주식투자 확대와 미국 생산기지 설립에 따른 자금 유출이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2026년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7월 말 외환보유액은 4,279억5,000만달러입니다.

환율이 높으면 외화 조달비용이 오르고, 해외주식 결제에 필요한 달러를 마련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개인의 해외 주식투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 부담은 증권사 재무 부서가 매일 감당하는 실무 과제입니다. 증권사는 은행처럼 외화예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없어 외환스왑에 의존하는데, 환율 변동성이 크면 스왑 비용과 담보 관리 부담이 함께 커집니다.

물가와 정책의 조합은 시장 심리를 통해 거래대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위험자산 선호가 꺾이면 거래대금이 줄어듭니다. 브로커리지 편중 구조에서 이 경로는 증권사 손익에 즉각 반영됩니다.

● 1-11. 세제와 정책: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밸류업

2026년에는 자본시장 관련 세제가 여럿 바뀌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됩니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제도로, 특례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는 30% 세율을 적용합니다. 정부 원안의 최고세율 35%에서 여야 합의로 25%로 낮추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에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하며 2028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배당분까지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인하고, 배당을 노린 장기 투자 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이는 데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지배구조 특성상 배당 확대보다 조세 형평성 훼손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은 2026년 1월 시행 예정으로 환원됐습니다. 거래세는 거래할 때마다 붙는 비용이므로 거래 회전율이 높은 투자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거래대금이 급증한 국면에서 이 변수가 어떻게 작동할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밸류업, 즉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은 저평가된 국내 증시 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 묶음입니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자기자본이익률 제고를 유도합니다. 현대차증권도 2025년 1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자기자본이익률 목표와 배당성향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라 2022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입니다. 세후 이익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므로 자기자본이익률 목표 달성 난이도가 그만큼 올라갑니다.

● 1-12. 종합 해석

이 장에서 확인한 산업의 모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증권업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으나 그 이익의 성분은 거래대금 의존적입니다. 자기자본 규모가 사업 범위를 가르는 계단 구조 속에서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래 인프라는 이원화됐고, 유동성 규제는 전 증권사로 확대되며, 부동산금융 잔불은 남아 있습니다. 거시

환경은 금리와 환율과 물가가 모두 높은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재무 직무에 수렴하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자본력이 제한된 중형사일수록 조달비용과 유동성 관리가 회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큼니다. 대형사는 발행어음이라는 완충 장치를 갖고 있지만 중형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 조달 만기를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수십억원 단위 손익 차이를 만듭니다. 2027년 유동성 규제가 적용되면 그 판단에 규제 산식이라는 제약 조건이 추가됩니다. 산업 분석을 재무 실무의 언어로 옮기면, 이 자리는 회사가 처한 구조적 제약을 매일 실무로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 2장: 주요 기업 비교 및 대상 회사 포지셔닝

● 2-1. 경쟁 지형 개관

국내 증권업의 경쟁 구도는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계단을 이룹니다. 2025년 상반기 별도 기준으로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10조5,215억원으로 1위, 미래에셋증권이 10조2,638억원으로 2위입니다. 그 뒤로 NH투자증권 7조4,808억원, 삼성증권 7조893억원, 메리츠증권 7조609억원, KB증권 6조7,246억원, 하나증권 6조619억원, 신한투자증권 5조5,276억원, 키움증권 5조4,385억원, 대신증권 3조7,032억원이 이어지며 이 열 곳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구성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증권업 자기자본은 전년 대비 9조8,000억원 늘었고, 이 가운데 대형사가 7조4,000억원을 차지했습니다. 자본 확충의 대부분을 대형사가 주도했다는 뜻이며, 계단 구조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현대차증권은 이 열 곳 아래, 자기자본 1조5천억원 안팎의 중형사 그룹에 속합니다. 한화투자증권, 유안타증권, DB금융투자, IBK투자증권, 교보증권, 신영증권 등이 비슷한 체급입니다.

리테일 점유율에서도 편중이 나타납니다. 국내 리테일 시장 점유율의 약 75%가 상위 10개 대형사에 몰려 있고, 중소형사 점유율은 10% 남짓에 머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1분기 실적을 두고 대형 증권사는 자기매매와 대출 관련 손익도 크게 늘었지만 중소형사는 위탁매매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호황이라도 대형사는 여러 갈래로 이익을 만들고 중소형사는 한 갈래에 기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 2-2.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은 자기자본 10조원대의 초대형사로, 자산관리와 해외 비즈니스, 자기자본투자에서 두드러집니다. 2025년 연결 순이익은 1조5,935억원입니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연금 잔고와 해외주식 잔고가 각각 50조원을 넘었습니다.

사업 모델의 특징은 자기 돈을 적극적으로 굴린다는 점입니다. 비상장 기업 투자에서 나오는 평가이익이 실적에 크게 기여합니다. 베트남과 인도 등 신흥국에 구축한 현지 법인 네트워크도 다른 회사가 따라 하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약점은 그 강점의 뒷면입니다. 자기자본투자와 해외투자의 손익 변동성이 크고, 방대한 글로벌 자산의 위험 관리 난도가 높습니다. 2026년 1분기에는 기업금융 관련 수익이 역성장하기도 했습니다.

퇴직연금에서는 2026년 상반기 적립금 51조원으로 증권사 1위이자 전 금융권 4위에 올랐습니다. 계열사 물량 비중은 0.4% 수준으로, 사실상 전부 비계열 기반입니다. 현대차증권과 정반대 구조입니다.

● 2-3.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18조5,406억원, 영업이익 2조3,426억원, 당기순이익 2조134억원을 기록하며 업계에서 처음으로 순이익 2조원을 넘겼습니다. 전년 대비 순이익 증가율은 79.9%입니다. 김성한 사장은 이 실적을 두고 이익 창출 구조와 실행력이 한 단계 진화했음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점은 균형입니다. 브로커리지, 자산관리, 기업금융, 자기자본 운용이 고르게 이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발행어음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키워 2025년 6월 기준 약 18조원을 조달했고, 이 낮은 비용의 자금이 다시 운용과 대출 수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순자본비율은 2025년 9월 3,838.96%로 업계 최상위입니다. 한국금융지주 체제라 자본조달과 계열 협업이 원활합니다. 종합투자계좌 인가 절차도 밟았습니다.

약점은 자기자본 운용 비중이 높은 만큼 시장 변동성에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퇴직연금에서는 2026년 1분기 22조5,945억원으로 증권사 3위이며,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가 52만3,000여명으로 증권업계 최다 수준입니다. 디폴트옵션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서비스 편의를 개선한 결과라고 회사는 설명합니다. 계열사 물량 비중은 0.7%로 개인 기반이 압도적입니다.

● 2-4. 삼성증권

삼성증권은 자기자본 7조원대이며 고액자산가 대상 자산관리에서 강점을 지닙니다. 2025년 순이익은 1조84억원입니다. 해외주식 수수료가 전년 대비 91% 증가하며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사업 모델의 핵심은 개인 자산관리입니다. 삼성 계열이라는 브랜드 신뢰를 바탕으로 고액자산가를 확보하고, 그 자산을 장기간 관리하며 보수를 얻습니다. 퇴직연금에서는 2026년 1분기 23조2,681억원으로 증권사 2위에 올라 한국투자증권을 앞섰고, 상위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계열사 물량 비중은 16.0%로, 대형 그룹 계열이면서도 비계열 기반이 대부분입니다.

현대차증권과 비교할 때 삼성증권은 중요한 참고점입니다. 두 회사 모두 대형 제조 그룹 계열이지만, 삼성증권은 계열 물량이 아니라 개인 자산관리로 규모를 만들었습니다. 계열 소속이라는 조건 자체가 성장 방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례입니다.

● 2-5. 키움증권

키움증권은 오프라인 지점 없이 온라인 채널로 개인 주식 거래 점유율 1위를 지켜 온 회사입니다. 2025년 순이익은 1조1,149억원입니다.

강점은 비용 구조입니다. 지점망을 두지 않아 고정비가 낮고, 그만큼 낮은 수수료로 개인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늘면 이익이 빠르게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2026년 1분기처럼 거래대금이 네 배 넘게 늘어난 국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봅니다.

약점 역시 같은 구조에서 나옵니다. 개인 거래대금 의존도가 높아 증시가 부진하면 실적이 크게 흔들립니다. 최근에는 기업금융과 자산관리로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의 리테일 부문에 가장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회사가 키움증권입니다. 온라인 수수료 경쟁에서 중형사가 비용 구조로 이기기 어렵다는 사실이, 현대차증권이 리테일 확대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합니다.

● 2-6.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자기자본 7조4,808억원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위입니다. 2025년 순이익 1조315억원으로 순이익 1조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 계열이며, 기업금융 부문에서 오랜 트랙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합투자계좌 인가 신청에도 나섰습니다.

퇴직연금에서는 개인형퇴직연금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10년 장기수익률이 10.35%로 해당 부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뒤에서 다룰 현대차증권의 수익률 문제와 대조를 이루는 지점입니다.

● 2-7. 중형 계열 기반 증권사군

현대차증권을 정확히 비추는 거울은 체급이 비슷한 계열 기반 중형사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자기자본 2조원대를 넘어서며 중소형사 가운데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기업금융 채무보증 수익 순위가 19위에서 12위로 크게 올랐습니다. 한화그룹 계열이며, 퇴직연금 계열사 물량 비중이 50.52%로 현대차증권 다음으로 높습니다. 토큰화 형태로 투자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며 디지털자산 대응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2025년 말 자본총계 1조9,000억원대로 자기자본 2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유안타그룹 계열이며, 특정 운용역 브랜드를 앞세운 랩 상품 시리즈로 자산관리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국내 계열 물량 없이 상품 경쟁력으로 성장한 사례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DB금융투자는 DB그룹 계열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이 207.9%로 7개 집단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트레이딩과 채권 부문에 강점이 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중소기업은행 자회사입니다. 국책은행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 대상

기업금융이 강점이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와 브로커리지 성장 둔화가 과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가 공유하는 사업 모델의 특징은 모그룹이 만들어 주는 기반입니다. 계열사의 퇴직연금, 회사채 발행 주선, 자금 운용 물량이 안정적인 바닥을 깔아 줍니다. 영업 조직이 처음부터 신규 고객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수익이 확보됩니다. 이 구조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 방어력이 되지만, 상승 국면에서는 성장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 2-8. 현대차증권의 좌표

현대차증권의 위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기반을 갖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특화 중형 증권사입니다.

체급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미치지 못하는 중형사입니다.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라는 무기를 쓸 수 없고, 리테일 점유율에서 대형사와 온라인 강자에 밀립니다. 대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는 증권사 가운데 독보적입니다. 2026년 6월 말 확정급여형 적립금 15조5,326 억원으로 증권사 1위이며,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43곳 가운데 삼성생명 43조6,482억원, 하나은행 18조4,894억원, 신한은행 17조9,992억원에 이어 4위입니다. 은행과 보험을 포함해 따져도 상위권이라는 뜻입니다.

수익 기반은 기업 대상 영업과 개인 대상 영업이 섞여 있으나 무게중심은 기업 쪽에 있습니다. 그룹 계열사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과 기업금융, 채권 중개와 자기매매가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 리테일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가 그 위에 얹히는 구조입니다.

신용도 측면에서는 그룹 지원 가능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최대주주인 현대자동차의 우수한 지원 역량과 평판 위험을 고려한 지원 의지를 감안할 때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자체 체력만으로 평가받는 회사와 달리, 그룹이라는 배경이 등급을 뒷받침한다는 뜻입니다.

● 2-9. 계열 기반 사업 모델의 작동 원리와 한계

계열 기반 사업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려 보겠습니다.

그룹 계열사 한 곳이 직원 퇴직급여를 적립해야 합니다. 이 회사가 계열 증권사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맡기면, 증권사는 그 자금을 운용하고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받습니다. 영업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한번 유치하면 오래 유지됩니다. 회사채를 발행할 때도 계열 증권사가 주관사로 참여합니다. 그룹의 여유 자금 운용에도 계열 증권사가 관여합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시장이 나빠도 계열 물량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재무 부서 입장에서 자금 흐름이 안정적이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한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장의 상한이 그룹 규모에 갑니다. 그룹이 커지는 만큼만 자연 성장하고, 그 이상은 비계열 영업으로 뚫어야 합니다. 현대차증권 퇴직연금 적립금이 2026년 1분기에 전분기 대비 3,343억원 줄어든 것은 이 한계가 드러난 사례입니다. 시장 전체로는 증권사에 자금이 유입되는 구간이었는데 홀로 감소했습니다.

둘째, 경쟁 근육이 덜 발달합니다. 비계열 고객을 상대로 수익률과 서비스로 경쟁해 본 경험이 적으면, 계열 물량이 흔들릴 때 대체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셋째, 실물이전 제도 같은 규제 변화가 이 구조를 흔듭니다. 가입자가 사업자를 쉽게 바꿀 수 있게 되면 계열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금을 붙잡아 두기 어려워집니다.

현대차증권은 이 한계를 인식하고 비계열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비중은 2025년 1분기 말 76.7%에서 2026년 1분기 말 75.5%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미래에셋증권 0.4%, 한국투자증권 0.7%, 삼성증권 16.0%와 비교하면 여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 2-10. 베어 케이스

균형을 위해 비관적 시각을 정리합니다.

산업 차원의 베어 케이스는 브로커리지 착시입니다. 2026년 1분기의 사상 최대 이익은 거래대금이 4.3배로 늘어난 결과입니다. 이 수준의 거래대금이 유지될 근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거래대금이 꺾이면 수탁수수료가 같은 속도로 줄고, 대형사보다 중형사가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기업금융 수수료가 제자리인 상태에서 브로커리지가 흔들리면 대체할 수익원이 마땅치 않습니다. 여기에 금리 상승이 겹치면 채권 평가손실과 조달비용 상승이 함께 옵니다. 증시 급등 이후 차익 실현 욕구와 해외 연기금 리밸런싱 매물 출회 가능성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회사 차원의 베어 케이스는 더 구체적입니다.

첫째, 퇴직연금 계열 의존과 성장 정체입니다. 2026년 1분기 적립금이 증권사 14곳 가운데 유일하게 줄었고, 계열 비중은 75.5%로 업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확정급여형만 놓고 보면 계열 물량이 80%를 넘습니다. 확정기여형 적립금은 9,154억원으로 전체의 5% 수준에 그칩니다.

둘째, 퇴직연금 장기수익률 부진입니다. 2026년 2분기 기준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10년 수익률은 확정급여형 2.62%, 확정기여형 5.32%, 개인형퇴직연금 3.93%로, 적립금 500억원 이상 사업자 가운데 모두 최하위입니다. 확정급여형 1위 하나증권 7.03%와는 4%포인트 이상, 개인형퇴직연금 1위 NH투자증권 10.35%와는 6%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3년 12.23%, 5년 5.24%, 7년 5.87%, 10년 3.93%로 모든 구간에서 최하위입니다. 수익률이 낮으면 비계열 고객 유치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셋째, 자산건전성 지표의 역행입니다. 2026년 1분기 요주의이하자산이 3,976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33.3% 늘었습니다. 총당금은 4년 가까이 1,000억원대에 머물러 요주의이하자산 대비 총당금 커버리지가 27.1%까지 낮아졌습니다. 한국신용평가가 산정한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자기자본의 87%로, 2025년 하반기 평가 당시 78%에서 올랐습니다. 회사는 일회성 요인과 선제적 총당금 적립을 근거로 시장 우려와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며,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익스포저 비율은 2025년 말 38.3%에서 2026년 상반기 말 30.8%로 낮아졌다고 설명합니다. 두 수치의 차이는 산정 범위 때문입니다. 신용평가사 기준은 대출채권과 수익증권, 채무보증, 사모사채 등 신용공여 이행분을 모두 포함하고, 회사 기준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만 봅니다.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그림이 달라진다는 점 자체가 이 사안의 복잡성을 보여 줍니다.

넷째, 시장 평가입니다. 증권주 가운데 주가순자산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회사의 자본 대비 수익 창출력을 낮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조달 구조의 취약성입니다. 발행어음이 없는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 들어가면 조달비용 상승분을 그대로 떠안습니다. 2027년 유동성 규제가 적용되면 보유 자산 구성과 우발채무 규모에 따라 비율 관리 부담이 추가로 생깁니다.

● 2-11. 종합 해석

경쟁 지형을 놓고 보면 현대차증권은 대형사와 같은 방식으로 겨루는 회사가 아닙니다. 자본력으로 규모를 키우는 경로가 막혀 있으므로, 계열 기반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채권 중개라는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비계열과 비부동산 영역을 넓히는 경로를 택했습니다.

재무 직무 관점에서 이 좌표가 갖는 함의는 명확합니다. 자본이 제한된 회사에서 재무 부서는 비용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조달금리를 0.1%포인트 낮추면 조달 규모가 1조원일 때 연간 10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면 그 차이는 훨씬 커집니다. 대형사에서는 이 정도 금액이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연간 순이익이 수백억원대인 회사에서는 손익에 뚜렷하게 잡힙니다. 경쟁사 비교를 재무의 언어로 옮기면, 체급 차이가 클수록 재무 실무의 정밀함이 더 중요해진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 3장: 대상 회사 심층 분석

● 3-1. 연혁과 사명 변경

현대차증권의 뿌리는 1955년 7월 26일 설립된 신흥증권입니다. 코스피 상장일도 이때로 기록됩니다. 오랫동안 중소형 증권사로 존재하다가 2008년 3월 현대자동차그룹에 편입되면서 성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사명은 여러 차례 변경됐습니다. 2008년 4월 현대차IB증권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당시 현대증권의 반발로 무산됐고, 2008년 6월 HMC투자증권으로 정해졌습니다. HMC는 현대자동차의 영문 약칭에서 따온 것입니다. 2016년 현대증권이 KB금융지주에 인수되어

2017년 KB증권으로 이름을 바꾸자, 현대차 이름을 쓸 여지가 생겼습니다. 2017년 7월 현대차투자증권으로, 2018년 7월 현대차증권으로 최종 변경했습니다.

이 이력을 다룰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흥증권 시기, HMC투자증권 시기, 현대차증권 시기의 사업 포트폴리오와 조직 성격은 서로 다릅니다. 그룹 편입 전 자료를 현재 법인의 사실로 옮기면 오류가 됩니다. 특히 조직문화와 사업 구조는 편입 이후 크게 재편됐습니다.

최근 연혁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2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를 취득했습니다. 2022년 11월과 2023년 10월에 한국ESG기준원 ESG평가 통합 A등급을 각각 3년 연속, 4년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2024년 3월 대표이사가 최병철에서 배형근으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 3월 유상증자로 납입자본금 1,620억원을 확보했고, 2025년 5월 상환전환우선주 잔여분을 소각하며 775억원을 상환했습니다. 2025년 9월에는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금융위원회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선정됐습니다. 2025년 11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2026년 리드 기업으로 선정됐고, 2025년 12월 제35회 다산금융상 증권 부문 금상을 받았습니다.

● 3-2. 지배구조와 그룹 지원 가능성

현대차증권은 코스피 상장사이며 종목코드는 001500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그룹 계열사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며, 그룹 합산 지분은 45%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조의 효과는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경영 안정성입니다. 그룹 지분이 확고해 적대적 인수 위험이 없고, 계열 시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른 하나는 신용도 보강입니다. 신용평가사들은 현대자동차그룹, 특히 지원 주체인 현대자동차의 지원 역량과 의지를 고려해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현대자동차 자체 신용도가 최상위 수준이므로, 이 배경이 현대차증권 등급을 뒷받침합니다.

2025년 유상증자에서 이 구조가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 구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이 총 3,095만8,700주를 청약해 청약률 102.8%를 기록하며 약 1,620억원을 모집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국면에서도 계열이 참여해 자본 확충을 완결한 것입니다.

재무 직무 관점에서 이 지배구조는 조달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채권 투자자는 발행사의 자체 체력뿐 아니라 모그룹의 지원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그룹 배경이 있는 회사는 같은 등급의 독립계 회사보다 조달이 수월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금 담당자가 시장에서 협상할 때 이 배경은 무형의 자산으로 작동합니다.

● 3-3. 재무 구조의 궤적

수치로 회사의 궤적을 따라가겠습니다. 별도 기준 총자산은 2021년 7조9,655억원에서 2025년 6월 12조855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자기자본은 2021년 1조1,592억원에서 2025년 6월

1조4,145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영업순수익은 2021년 3,248억원에서 2023년 2,519억원, 2024년 2,633억원으로 정체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021년 1,555억원에서 2023년 654억원, 2024년 546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2025년 상반기 54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302억원 대비 반등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021년 1,167억원에서 2024년 362억원까지 떨어졌다가 2025년 577억원으로 59.7% 회복했습니다.

2026년 들어 흐름은 뚜렷하게 개선됐습니다.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8,478억 3,700만원으로 전년 동기 4,254억4,700만원 대비 99.3%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23억 1,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271억원 대비 19.2%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265억9,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192억8,600만원 대비 37.9% 증가했습니다. 직전 분기인 2025년 4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85.6%, 영업이익은 698.5%, 당기순이익은 383.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숫자들이 그리는 이야기는 명확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총당금으로 인한 실적 저점기였고, 2025년부터 회복 국면에 들어섰으며, 2026년 들어 거래대금 급증에 힘입어 회복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다만 영업이익 증가율 19.2%가 매출액 증가율 99.3%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은 짚어야 합니다. 매출이 두 배로 늘어도 이익은 그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수탁 관련 매출이 늘면서 그에 따르는 비용도 함께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3개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영업순수익 커버리지가 130% 수준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업순수익 커버리지는 판매관리비를 영업순수익으로 얼마나 감당하는지 보는 지표로, 100%를 넘으면 기본 영업으로 고정비를 충당한다는 뜻입니다.

● 3-4. 사업 부문별 손익 구조

신용평가사 자료를 기준으로 사업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투자중개, 자산관리, 기업금융, 자산운용의 네 갈래로 나뉩니다.

투자중개 부문은 수탁수수료와 예치금 수익, 신용공여 이자를 포함합니다. 2026년 1분기에는 국내 증시 거래량 호조로 이 부문 수탁수수료가 크게 늘었습니다. 매출액이 두 배로 뛴 주된 이유입니다.

자산관리 부문은 펀드판매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신탁보수를 포함하며, 여기에서 퇴직연금 보수가 안정적으로 발생합니다. 신용평가사는 이 부문을 회사 수익의 안정 장치로 평가합니다.

기업금융 부문은 인수와 주선, 매수와 합병, 보증 업무를 포함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구조화금융 비중이 컸으나, 지금은 이를 줄이고 인프라금융, ESG금융,

신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같은 비부동산 영역으로 무게를 옮기고 있습니다. 기업금융 부문 펀드와 조합 결성액은 2024년 말 8개 1,480억원에서 2026년 6월 말 16개 4,555억원으로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장기임대운용사업의 운용사 참여도 넓히고 있습니다.

자산운용 부문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외환 운용을 담당합니다. 채권 중개 영업과 자기매매에서 나오는 수익이 판매관리비를 감당하는 데 기여합니다. 파생결합증권은 전액 백투백헤지로 운영합니다. 백투백헤지는 고객에게 판 상품과 똑같은 조건의 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사 와서 위험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위험을 스스로 떠안는 자체헤지와 달리, 수수료 마진은 줄지만 시장이 급변할 때 손실을 입지 않습니다. 2020년 1분기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자체헤지를 하던 다른 증권사들이 헤지 비용 급증으로 손실을 본 반면, 현대차증권은 파생상품 손실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양호한 운용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보수적 운영 기조가 위기에서 방어력으로 작동한 사례입니다.

2025년 실적 회복에는 서울 소재 오피스 자산 매각이익 약 380억원도 기여했습니다. 이는 반복되지 않는 일회성 요인입니다.

● 3-5.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자본 확충의 전말

현대차증권 최근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유상증자입니다. 시간 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회사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명분으로 2,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했습니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이었습니다.

배경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과 자본적정성 우려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정정신고서에서 2022년부터 이어진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과 브릿지론 등 개발금융 부실이 늘었고, 그 결과 일부 자산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수익성이 저하됐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3분기 국내 기준 부동산 익스포저는 5,874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45.2%였고, 프로젝트파이낸싱과 브릿지론을 합친 금액 가운데 중순위와 후순위 약정 비중이 92%에 달해 우발채무 위험이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면서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증자 규모에 반발했습니다. 정정신고서는 2025년 1월 금융감독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25년 3월 청약을 거쳐 약 1,620억원이 납입됐습니다. 자금 사용처는 차세대 원장시스템 개발과 상환전환우선주 및 단기차입금 상환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정해진 시점에 회사가 되사 주기로 약속한 우선주로, 회계상 자본으로 잡히지만 실질은 부채에 가깝습니다. 회사는 원금과 미지급배당금을 포함해 804억원 규모를 조기상환했고, 2025년 5 월에는 잔여분을 소각하며 775억원을 상환했습니다.

이 유상증자가 재무 직무 관점에서 상징적인 이유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신용등급 강등 방지였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자본 확충으로 신용등급 강등 시 발생할 수 있었던 조달비용 상승과 영업 기회

상실 위험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본과 신용등급과 조달비용이 하나의 사슬로 이어져 있고, 이 사슬을 관리하는 것이 재무의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배형근 대표는 당시 이번 유상증자를 기반으로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대차증권이 증권업계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3-6. 신용등급 AA-의 의미와 유지 조건

현대차증권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세 곳으로부터 AA- 안정적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A등급의 정의부터 짚겠습니다. 신용평가사 기준으로 AA는 전반적인 채무 상환 능력이 매우 높지만 AAA 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은 AA-는 AA 구간의 아래쪽입니다. 한 단계 더 내려가면 A+가 되며, 이 경계는 시장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일부 기관투자자는 AA등급 이상만 담도록 내부 기준을 두기 때문에, AA- 아래로 내려가면 잠재 투자자 풀 자체가 줄어듭니다. 조달금리 상승과 조달 가능 규모 축소가 함께 일어납니다.

앞서 다룬 신유동성비율 산식에서도 등급이 작동합니다. 유동자산 할인율은 AA등급 채권 7%, A등급 이하 10%로 갈립니다. 우발채무 유출률은 단기신용등급 A1이면 16%, A2 이하이면 60%로 크게 벌어집니다. 등급 한 단계가 회사의 규제비율 계산에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한국기업평가는 유상증자로 재무건전성 지표가 상당 부분 회복돼 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봤습니다. 자기자본 효과를 반영하면 순요주의이하여신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2024년 9월 13.1%에서 유상증자 후 11.3%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2026년 6월 정기평가에서 순자본비율과 조정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부동산금융의 양적 규모 관리와 건전성 관리가 계속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릿지론과 고정이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은 총당금 적립과 상각으로 익스포저를 줄였으나, 분양률이 저조한 지방과 비아파트 사업장이 남아 있다는 진단입니다.

자본적정성 지표를 시점별로 보면, 2025년 6월 말 순자본비율 608.3%, 조정 영업용순자본비율 264.1%였고, 2026년 3월 말에는 순자본비율 564.6%, 조정 영업용순자본비율 241.5%입니다. 규제 기준을 크게 웃돌지만 반년 사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위험 인수가 늘었거나 자산 구성이 바뀌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 3-7. 자산건전성: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와 총당금 논쟁

이 항목은 회사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지점이므로 양쪽 근거를 함께 놓겠습니다.

한국신용평가가 2026년 6월 발표한 정기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자기자본의 87% 수준입니다. 채무보증과 사모사채 등 신용공여 이행분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2025년 11월 평가 당시 78%였으므로 반년 사이 9%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요주의이하자산은 2023년 말 2,912억원에서 2024년 말 2,748억원으로 줄었다가 이후 늘어, 2026년 1분기에는 3,976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33.3%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총당금은 4년 가까이 1,000억원대에 머물러, 요주의이하자산 대비 총당금 커버리지가 27.1% 까지 낮아졌습니다.

회사 측 설명은 다릅니다.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익스포저 비율은 2025년 말 38.3%에서 2026년 상반기 말 30.8%까지 낮아졌으며, 비부동산 영역 확대와 기업금융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요주의이하자산 증가에 대해서는 일회성 요인과 선제적 총당금 적립을 근거로 시장 우려와 거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수치의 차이는 산정 기준에서 나옵니다. 87%는 대출채권, 수익증권, 채무보증, 사모사채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노출을 합친 것이고, 30.8%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만 따로 뽑은 것입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기보다, 무엇을 위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관점 차이입니다.

지원 전략을 세우는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쪽에 무게를 두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신용평가사가 넓은 기준으로 익스포저를 보는 이유는 위기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노출이든 결국 회사 자본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보증은 평소에는 장부에 부채로 잡히지 않지만, 사업장이 무너지면 회사가 갚아야 합니다. 새 유동성 규제가 우발채무를 유동부채에 더하기로 한 것도 같은 문제의식입니다. 재무 부서 입장에서는 넓은 기준으로 계산해 두어야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3-8. 경영 전략과 밸류업 로드맵

배형근 대표는 1965년생으로 서울 경기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대그룹 종합기획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현대자동차 기획실장과 기업전략실장, 현대모비스 재경본부장 겸 부사장을 거친 재무 전문가입니다. 2023년 말 현대차증권 대표이사로 내정됐고 2024년 3월 취임했습니다. 임기는 2027년 3월 20일까지입니다.

전임 최병철 대표가 2023년 초 연임에 성공해 2026년까지 임기가 연장됐음에도 같은 해 말 교체된 배경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룹 측은 증권업황 하락 국면을 고려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리테일, 기업금융 부문의 본원적 경쟁력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 전문가를 리스크 관리 국면의 수장으로 앉힌 인사였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외형 경쟁이 아니라 체질 개선입니다. 대규모 자본 확충으로 덩치를 키우기보다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전 부문 경쟁력을 높여 기업가치를 올리겠다는 방향입니다. 2025년을 체질 개선 기반 구축의 시기로 설정했고, 2026년을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의 전환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밸류업 로드맵은 자기자본이익률 목표로 표현됩니다. 2025년 자구 노력으로 4%, 2026년

수익성 개선으로 7%, 2027년 사업 안정화로 8%, 2028년 이후 10% 이상 유지가 목표입니다. 배당성향은 40%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하며 초기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2025년 1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이후 그해 시가총액이 발표 시점 대비 137% 상승했습니다.

2026년 경영방침은 인공지능 혁신과 비즈니스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강화입니다. 구체적 실행은 네 가닥입니다. 부동산 의존도를 낮추고 비부동산 기업금융을 넓히는 것, 퇴직연금에서 비계열과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퇴직연금을 늘리는 것, 인공지능을 사업 전반에 적용하는 것, 차세대 시스템으로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배 대표는 전문경영인임에도 자사주를 사들이며 책임경영 의지를 보였습니다. 2026년에는 근로소득을 재원으로 약 1억원을 투입해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금융투자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원이사로 선임됐고, 임기는 2026년 3월 14일부터 2028년 3월 13일까지입니다. 업계 내 위상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3-9. 디지털과 인공지능 전략

회사는 인공지능을 업무 효율 개선 수단을 넘어 본업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적용 영역은 연금입니다. 연금 사업에 특화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제도 안내, 포트폴리오 진단과 추천, 자산 재구성,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앞서 다룬 퇴직연금 수익률 문제와 비계열 확대 과제에 대한 대응으로 읽힙니다. 개인 고객을 상대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상담 인력이 필요한데, 중형사는 인력 규모에서 대형사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그 격차를 메우겠다는 발상입니다.

리테일 인프라도 손보고 있습니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내일'을 고도화했고, 해외주식 주간거래를 시작했으며, 로보어드바이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세대 원장시스템 개발에 배정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원장시스템은 고객 계좌와 거래 내역, 잔고를 관리하는 증권사의 기간 시스템으로, 회사 전산의 뼈대에 해당합니다.

재무 직무 관점에서 차세대 원장시스템 전환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원장이 바뀌면 결제와 정산 데이터의 흐름이 바뀌고, 자금 관리 시스템과의 연계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시스템 전환기에는 검증과 병행 운영 부담이 재무 부서에도 돌아옵니다.

● 3-10. 리스크 요인

각 리스크를 무엇이, 왜, 발생 가능성, 영향도 순으로 서술합니다.

첫째, 부동산금융 잔여 익스포저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분양이 부진한 지방과 비아파트 사업장에서 추가 부실이 나올 가능성입니다. 왜 생기는가 하면, 2022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잔재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생 가능성은 중간 수준입니다. 총당금

적립과 상각으로 상당 부분 정리했으나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2026년 1분기 요주의이하자산이 33.3% 늘어난 사실이 이를 보여 줍니다. 영향도는 중간에서 높음입니다. 추가 총당금은 실적과 자본에 곧바로 반영되며, 채무보증 형태의 익스포저는 새 유동성 산식에서 유동부채로 잡힙니다. 재무 부서는 이 익스포저 규모를 상시 파악해 규제비율 영향을 계산하고, 신용평가사 문의에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퇴직연금 계열 의존과 수익률 부진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계열 물량 비중 75.5%라는 구조와 원리금비보장 상품 장기수익률 최하위라는 성과입니다. 왜 생기는가 하면, 사업 초기부터 그룹 물량으로 규모를 키운 성장 방식과 개인 고객 기반의 부족 때문입니다. 발생 가능성은 이미 현실화된 상태입니다. 2026년 1분기 적립금이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줄었습니다. 영향도는 중간입니다. 퇴직연금 보수는 회사 수익의 안정 장치이고, 예치 자금은 재무 부서의 자금 운용 기반이기도 합니다. 실물이전 제도로 자금이 빠져나가면 이 기반이 얇아집니다.

셋째, 중형사의 조달 경쟁력 열위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 같은 저비용 대량 조달 수단이 없다는 구조적 조건입니다. 왜 생기는가 하면, 자기자본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준 3조원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발생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자본 규모가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습니다. 영향도는 중간이며,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더 커집니다. 이 리스크가 곧 재무 직무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넷째, 거시 변수 급변동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금리와 환율이 함께 오르는 국면에서 채권 평가손실과 외화 조달비용 상승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왜 생기는가 하면, 증권사 손익이 시장 변수에 크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발생 가능성은 중간에서 높음입니다. 2026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전망과 원/달러 1,420~1,520원 밴드 전망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영향도는 높음입니다. 자산부채관리와 헤지가 방어 수단이며, 이 역시 재무 부서의 영역입니다.

다섯째, 브로커리지 의존에 따른 실적 변동성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2026년 실적 개선의 대부분이 거래대금 급증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생기는가 하면, 기업금융이 아직 회복 중이고 자산관리가 계열 물량에 묶여 있어 대체 수익원이 얇기 때문입니다. 발생 가능성은 중간입니다. 거래대금이 현 수준을 유지할 보장은 없습니다. 영향도는 높음입니다. 자기자본이익률 로드맵 달성 여부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여섯째, 규제 전환 대응 부담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2027년 1월 시행되는 유동성 규제에 맞춰 자산 구성과 조달 구조, 산정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 생기는가 하면, 지금까지 간접 규율 대상이던 회사가 준수 의무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발생 가능성은 확정적입니다. 시행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향도는 중간입니다. 준비 기간이 있어 충격보다는 업무량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니다.

● 3-11. 시나리오별 전략 옵션

회사의 전략 담당자 시각에서 세 가지 경로를 그려 보겠습니다.

낙관 시나리오는 거래대금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금리가 예상보다 일찍 안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국면에서는 회복된 자본과 유지된 신용등급을 지렛대로 삼아 비부동산 기업금융을 넓히고,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 비계열 물량을 빠르게 늘려 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재무 부서는 늘어나는 기업금융 자금 집행을 뒷받침할 조달 다변화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회사채 만기를 분산하고,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에서 장기물 발행을 늘려 조달 구조를 고정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거래대금이 다소 둔화되고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는 경우입니다. 체질 개선을 이어 가며 자기자본이익률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속도는 완만해집니다. 재무 부서는 조달비용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2027년 유동성 규제에 대비해 자산 구성을 미리 조정합니다. 할인율이 낮은 국공채와 AAA등급 채권 비중을 늘리고, 우발채무 규모를 관리하는 작업이 여기 해당합니다.

비관 시나리오는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금리가 추가로 오르며 부동산 사업장에서 추가 부실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국면에서는 방어 태세로 전환해 위험 노출을 줄이고 유동성 완충을 두텁게 쌓아야 합니다. 재무 부서의 역할이 가장 커지는 국면입니다. 조달 만기를 길게 가져가 차환 위험을 줄이고,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같은 단기 조달 의존도를 낮추며, 신용평가사와의 소통을 강화해 등급을 지키는 일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룹 지원 가능성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열과의 소통 채널을 열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 3-12. 공개 자료의 한계

이 장을 마무리하며 자료의 한계를 밝힙니다. 현대차증권의 부문별 매출과 손익 비중을 최신 기준으로 정밀하게 공개한 자료는 제한적입니다. 이 보고서의 부문 구성 서술은 신용평가사 보고서와 기업설명 자료,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정확한 세부 비율은 전자공시시스템의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2분기 개별 실적은 이 보고서 작성 시점에 확인 가능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익스포저 비율 30.8%는 회사가 2026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밝힌 수치이며, 다른 항목의 상반기 수치와 시점을 맞춰 비교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직 구조와 부서 편제에 관한 공개 정보 역시 제한적입니다. 다만 2026년 1분기 실적 공정공시에서 정보제공자가 재무팀으로 명시되고 연락처가 재무팀 번호로 기재된 점은, 재무 조직이 공시와 투자자 대응 업무에도 관여한다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 3-13. 종합 해석

현대차증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부동산 사이클에서 입은 상처를 자본 확충과 사업 재편으로 치료하며 회복 국면에 들어선 계열 기반 중형 증권사입니다.

이 회사의 재무 부서가 놓인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자본이 넉넉하지 않으므로

조달비용 한 자리 수 차이가 손익에 잡힙니다. 신용등급 AA-를 지키는 일이 곧 조달 환경을 지키는 일입니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와 요주의이하자산 지표가 신용평가사의 관심 대상이므로,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해 설명하는 일이 등급 방어에 실무가 됩니다. 2027년 유동성 규제 시행을 앞두고 자산과 부채 구성을 다시 설계해야 하며, 금리와 환율이 함께 오르는 국면에서 자산부채관리 판단이 매일 요구됩니다. 회복 국면의 회사에서 재무 부서는 그 회복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 4장: 인재상/조직문화

● 4-1. 현대자동차그룹 핵심가치 체계의 현재 모습

이 항목은 최신성 확인이 가장 필요한 대목이므로 먼저 정확한 구조를 제시합니다.

현대자동차는 그룹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인 Hyundai Way를 정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공식 자료는 이를 글로벌 원 팀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현대차만의 일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룹 비전은 Progress for Humanity, 우리말로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입니다.

구조는 이중입니다. 위쪽에 그룹 핵심가치 다섯 가지가 있고, 각 핵심가치 아래에 Hyundai Way 실행 원칙이 두 가지씩 배치되어 모두 열 가지를 이룹니다.

고객 최우선 아래에는 최고 수준의 안전과 품질, 그리고 집요함이 놓입니다. 이 묶음의 표어는 우리의 의사결정 기준은 고객 감동이라는 문장입니다.

도전적 실행 아래에는 시도와 발전, 그리고 민첩한 실행이 놓입니다. 표어는 새로운 내일은 오늘의 도전에서 시작된다는 문장입니다.

소통과 협력 아래에는 협업, 그리고 회복탄력성이 놓입니다. 표어는 열린 마음으로 협업하여 더 큰 가능성을 이룬다는 문장입니다.

인재 존중 아래에는 다양성 포용, 그리고 전문성이 놓입니다. 표어는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한다는 문장입니다.

글로벌 지향 아래에는 윤리준수, 그리고 데이터 기반 사고가 놓입니다. 표어는 최고의 모빌리티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한다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를 두 가지 짚습니다. 첫째, 다섯 가지 핵심가치만 언급하고 열 가지 실행 원칙을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현재 체계는 두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절반만 본 셈이 됩니다. 둘째,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현대그룹은 별도의 기업집단이며, 도전과 소통과 창의로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라는 다른 인재상을 제시합니다. 현대차증권은 현대자동차그룹 소속이므로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 4-2. Hyundai Way 열 가지의 내용

각 항목의 내용을 회사 설명에 근거해 정리합니다.

최고 수준의 안전과 품질은 안전과 품질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안전과 품질을 고객과의 첫 번째 약속으로 규정하며, 여기서 말하는 품질은 제품 품질을 넘어 업무의 품질까지 포함합니다. 일하는 매 순간 세부까지 고민해 업무 품질을 높인다는 서술이 붙습니다.

집요함은 적당한 수준으로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과제가 복잡해질수록 끝까지 핵심을 파고드는 태도가 필요하며, 집요함을 곧 책임감으로 규정합니다.

시도와 발전은 수만 번의 시도와 도전이 혁신을 만든다는 관점입니다. 작은 시도로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에서도 배움을 얻어 다음 도전을 준비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첩한 실행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나옵니다. 100%를 준비하느라 타이밍을 놓치기보다 실행 속에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한다는 원칙입니다.

협업은 자동차 타이어를 한 방향으로 맞추듯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며 일한다는 비유로 설명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과 조직이 함께 일할 때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서 협업이 시작된다는 내용입니다.

회복탄력성은 도전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관점입니다.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조직 체질을 만들기 위해 서로 격려한다는 서술입니다.

다양성 포용은 다양성이 높을수록 조직 역량이 높아진다는 인식입니다.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편견 없이 경청하며,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모아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성은 기술을 모르는 비즈니스와 비즈니스를 모르는 기술 모두 고객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각자 분야의 전문가로서 깊이 있는 지식을 쌓되, 시장의 필요와 기술과 데이터까지 함께 보며 영역을 넓힌다는 원칙입니다.

윤리준수는 사람들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돕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하며 규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내용입니다.

데이터 기반 사고는 데이터 기반 사고를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규정합니다. 과거 경험이나 직감만으로 의사결정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현상을 분석해 통찰을 도출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열 가지 가운데 재무와 자금 실무에 가장 가깝게 이어지는 항목은 안전과 품질, 집요함, 윤리준수, 데이터 기반 사고입니다. 결제 업무는 오류가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므로 품질과 집요함이 그대로 업무 기준이 됩니다. 자금과 계좌를 다루는 일은 규정 준수가 전제이므로 윤리준수가 직무 자격 요건에 가깝습니다. 자금 계획과 조달 판단은 감이 아니라 수치로 이루어지므로 데이터 기반 사고가 실무 방식과 일치합니다.

● 4-3. 그룹 최고경영진의 2026년 메시지

조직이 향하는 방향을 읽으려면 최고경영진의 발언을 살펴야 합니다.

정의선 회장은 2026년 1월 5일 신년회에서 2026년을 위기가 현실화되는 한 해로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고객 관점의 근본적 체질 개선, 본질을 꿰뚫는 민첩한 의사결정, 공급 생태계 동반자 지원 확대, 파트너와의 과감한 협력, 산업과 제품의 새로운 기준 선도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기술 하나로 보지 않고 기업과 산업의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범용 지능 기술로 규정하며 인공지능 기반 체질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현대차증권의 2026년 경영방침인 인공지능 혁신과 비즈니스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강화와 정확히 겹칩니다. 그룹 전체가 체질 개선과 민첩성과 인공지능을 화두로 삼고 있고, 계열사가 그 방향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룹 본체의 경영 환경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은 2조5,1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8% 감소했고, 2분기 영업이익은 2조8,509억원으로 20.8%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1분기 45조9,389억원, 2분기 49조2,153억원으로 각각 역대 최대 수준이지만 수익성은 둔화됐습니다.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글로벌 수요 감소, 관세, 원자재 가격 상승, 부품사 화재로 인한 생산 차질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회사는 컨틴전시 플랜 강화와 지출 전반의 원점 재검토를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룹 본체가 비용을 다시 들여다보는 국면이라는 사실은 계열사 조직 운영에도 영향을 줍니다. 비용 관리와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환경이며, 이는 재무 부서의 역할과 직결됩니다.

● 4-4. 현대차증권의 조직문화

현대차증권의 조직문화는 두 가지 성격이 함께 나타납니다.

한쪽에는 대형 제조 기업집단의 성격이 있습니다. 안정성과 체계, 절차 준수, 성과 관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증권업 특유의 성과 지향과 수평적 소통 시도가 있습니다.

수평적 소통의 대표 사례는 주니어 중심 소통 협의체입니다. 회사는 약 18년간 젊은 직원들이 업무 혁신과 기업문화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배형근 대표는 3년 연속 주니어보드와 대담회를 열었습니다. 2025년 6월에는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임직원 타운홀 미팅을 열어 회사 비전과 경영전략,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최고경영진이 젊은 직원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준법과 윤리를 강조하는 문화도 뚜렷합니다. 2026년 7월 9일에는 여의도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날 행사를 열고 임직원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에 참여했습니다. 같은 해 4월 실시한 자율준수 프로그램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2025년 9월에는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금융위원회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선정됐고, 한국ESG

기준원 ESG평가에서 4년 연속 통합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문화적 특징이 재무 직무와 이어지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회계와 감사 지배구조에서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내부 통제와 재무 보고 절차가 정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반복해 강조하는 조직에서는 규정 준수가 문화로 작동합니다. 자금과 결제를 다루는 부서에서 이런 환경은 업무의 안정성을 뒷받침합니다.

직장 평가 사이트 등에서 추론 가능한 일반적 특성은, 계열사로서의 안정성과 근무 여건에 대한 긍정 평가가 있는 반면 대형사 대비 보상과 성장 기회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형 증권사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경향이며, 특정 시점의 개별 후기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4-5. 재무와 자금 도메인이 요구하는 인재 특성

증권사 본사 관리직군, 그중에서도 재무와 자금 영역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정확성입니다. 이 영역에서 정확성은 미덕이 아니라 자격 요건입니다. 한국은행 금융망을 통한 거래결제에서 금액이나 계좌, 시점을 틀리면 회사 전체의 결제 사슬이 흔들립니다. 영업 부서의 실수는 기회 손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결제 부서의 실수는 사고가 됩니다. 이 차이가 요구되는 성향을 결정합니다.

둘째는 규율성입니다. 순자본비율, 유동성비율, 레버리지비율 같은 규제 지표를 상시 지켜야 하므로, 규칙을 몸에 익히고 지키는 성향이 필수입니다. 2027년 유동성 규제가 시행되면 지켜야 할 규칙이 더 늘어납니다.

셋째는 숫자 감각입니다. 재무제표를 읽고, 자금 흐름을 며칠 앞서 예측하며, 금리와 환율 변동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숫자 감각은 계산 능력보다 숫자 사이의 관계를 보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금리가 25bp 오르면 보유 채권 평가액이 얼마나 줄고 조달비용이 얼마나 늘지, 그 순효과가 어느 방향인지 그려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는 위기 상황의 판단력입니다. 시장이 급변하는 날에는 평소 절차대로 되지 않습니다. 조달 창구가 좁아지고, 금리가 튀고, 상대방이 거래를 꺼립니다. 이때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미룰지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증권사 자금 부서들이 겪은 상황이 이런 경우입니다.

다섯째는 조율 능력입니다. 재무와 자금은 사내외 수많은 상대와 소통합니다.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자금중개회사, 은행, 신용평가사, 금융감독당국이 사외 상대이고, 사내에서는 기업금융과 운용, 리테일 부문이 상대입니다. 자금을 쓰겠다는 부서와 자금을 지켜야 하는 부서 사이에서 조율하는 일이 일상입니다.

여섯째는 기록과 문서 관리 능력입니다. 계약을 관리하고 유관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는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력을 추적하는 습관이 성과를 좌우합니다.

● 4-6. 채용 공고가 함축한 역량 신호의 해석

공고에 적힌 수행업무를 역량 언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행 금융망 결제 및 은행이체 등 자금결제 수행이라는 항목은 정확성,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 시간 관리 능력을 요구합니다. 결제에는 마감 시각이 있고 그 시각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원화와 외화 자금 입출금 및 금융기관 계좌 관리라는 항목은 외환에 대한 기본 지식, 다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는 능력, 유동성 감각을 요구합니다. 계좌가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으면 어느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파악하는 일 자체가 업무가 됩니다.

금융기관 계약관리 및 업무 협의라는 항목은 계약 문서를 읽고 관리하는 능력, 협상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요구합니다. 증권사는 여러 은행 및 금융기관과 계좌 약정, 거래 약정, 한도 약정을 맺습니다. 이 약정들의 조건과 갱신 시점을 관리해야 합니다.

유관기관 요청자료 제출 및 대외 협력업무라는 항목은 재무 데이터에 대한 이해, 자료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능력, 기한 준수 능력을 요구합니다. 신용평가사가 요청한 자료에 앞뒤가 맞지 않는 숫자가 섞이면 회사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이 네 가닥이 하나로 모이는 지점은 신뢰성입니다. 회사 바깥의 기관들이 이 회사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일, 그것이 이 자리의 본질입니다.

● 4-7. 종합 해석

인재상과 조직문화를 놓고 보면, 현대차증권이 속한 환경은 세 가지 성격을 지닙니다. 그룹 차원에서는 체질 개선과 민첩성과 인공지능이 화두이고, 회사 차원에서는 안정성 위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국면이며, 직무 차원에서는 정확성과 규율과 책임이 요구됩니다.

Hyundai Way 열 가지 가운데 안전과 품질, 집요함, 윤리준수, 데이터 기반 사고가 재무 실무의 언어와 겹친다는 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조업 그룹이 공정과 품질에서 다듬어 온 원칙이 금융 계열사의 관리 업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품 하나의 불량이나 차량 전체의 안전을 해치듯, 결제 한 건의 오류가 회사 전체의 신뢰를 해칩니다. 조직이 요구하는 태도와 직무가 요구하는 태도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구조입니다.

■ 5장: 직무 분석

● 5-1. 재무 직무의 좌표

증권사 조직에서 재무 부서가 어디에 놓이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증권사 조직은 크게 영업 부문과 지원 부문으로 나뉩니다. 영업 부문에는 리테일, 자산관리, 기업금융, 운용이 있고, 지원 부문에는 재무와 회계,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인사, 정보기술이

있습니다. 재무 부서는 지원 부문에 속하지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지원 부서가 규칙을 만들고 감시하는 역할이라면, 재무 부서는 자금이라는 자원을 실제로 움직이는 실행 조직입니다.

재무 부서 안에서도 역할이 나뉩니다. 회계와 결산을 담당하는 영역, 자금 조달과 운용을 담당하는 영역, 예산과 관리회계를 담당하는 영역, 세무를 담당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번 채용 공고가 가리키는 자리는 자금 조달과 운용, 그중에서도 결제와 계좌 관리, 유관기관 대응에 무게가 실린 영역입니다. 증권사에 따라 자금부, 자금팀, 재무팀 같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자리의 성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회사의 심장이자 혈관에 해당합니다. 심장은 정해진 리듬으로 피를 내보내고, 혈관은 그 피가 온몸에 닿게 합니다. 자금 부서는 정해진 시각에 자금을 내보내고, 회사의 각 부문이 필요한 자금을 쓸 수 있게 합니다. 이 기능이 하루라도 멈추면 영업이 아무리 잘돼도 회사는 서 버립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에서 여러 금융회사가 겪은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 5-2. 한국은행 금융망 결제 실무

채용 공고의 첫 번째 업무입니다. 개념부터 풀겠습니다.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거래결제시스템입니다. 1994년 12월 가동을 시작했고, 2009년 5월 4일 기능을 대폭 개선한 신한은행금융망이 정식 가동됐습니다. 금융기관 사이의 콜거래, 증권 거래대금, 외환매매대금 등을 실시간으로 결제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은행뿐 아니라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참가하며, 참가기관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자금을 주고받습니다.

일상의 언어로 옮기면, 개인이 은행 앱으로 계좌이체를 하듯 금융기관들이 서로 큰돈을 주고받는 국가 공식 시스템입니다. 다만 오가는 금액이 수십억원에서 수천억원 단위입니다.

2009년 개선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결제 방식입니다. 기존의 실시간총액결제에 상계결제 기능을 더한 혼합형결제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실시간총액결제는 거래 한 건마다 전액을 주고받는 방식이라 안전하지만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상계결제는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이라 필요한 자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방식을 함께 쓰면 안전성과 효율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중앙은행 거래결제시스템 가운데 가장 앞선 형태로 평가받으며, 유럽연합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운영되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접속 방식입니다. 기존 단말기 접속에 더해 서버 간 접속 방식이 추가되면서, 참가기관이 자금이체 업무를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처리하는 일관처리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금 담당자의 실무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회사의 한국은행 당좌예금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날 나갈 자금과 들어올 자금을 시간대별로 배열합니다. 특정 시각에 잔액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면 미리 자금을 조달하거나 결제 순서를 조정합니다. 일중에 필요한 자금을 일중 결제유동성이라고 부르며, 이를 관리하는 것이 이 업무의 핵심입니다.

혼합형결제시스템이 자금 부담을 줄여 준다고 해서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계는 서로 주고받을 거래가 있을 때 작동합니다. 일방적으로 나가기만 하는 자금은 그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 5-3. 증권 결제와 예탁결제원

주식 거래에는 자금 결제뿐 아니라 증권 결제가 함께 따릅니다. 이 부분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당합니다.

투자자가 주식을 사면 증권을 받고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먼저 보냈는데 증권을 못 받거나, 증권을 먼저 넘겼는데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없애기 위해 증권 인도와 대금 지급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를 동시결제라고 부릅니다. 물건과 돈을 동시에 맞바꾸는 현금 거래와 같은 원리입니다.

증권사 자금 담당자는 이 결제에 필요한 자금이 제때 준비되도록 관리합니다. 매매가 폭증한 날에는 결제해야 할 대금도 커집니다. 2026년 1분기처럼 거래대금이 전년의 4.3배로 늘어난 국면에서는 결제 규모도 그만큼 커졌다는 뜻입니다.

한국증권금융도 중요한 상대입니다. 증권사를 고객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 자금과 증권을 공급하고, 투자자예탁금을 관리하며, 위기 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한국증권금융과 산업은행 등이 증권사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급히 가동한 것이 그 사례입니다.

● 5-4. 원화 자금 조달과 운용

증권사는 매일 자금이 남거나 모자랍니다. 이 과부족을 조절하는 것이 자금 부서의 일상 업무입니다. 수단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콜은 금융회사 사이의 초단기 자금거래입니다. 신용콜 시장은 1일물에서 최장 90일물까지 거래되며,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합니다. 증권사는 콜시장에서 자금을 빌리는 쪽으로만 참여할 수 있고, 그마저도 제한을 받습니다. 과거 증권사 콜차입 규모가 자기자본의 41.8%에 달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금융감독당국이 초단기 자금 의존이 위기 시 취약성을 키운다는 문제의식에서 콜차입 한도를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축소하는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2015년 비은행 금융기관의 콜시장 참가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면서, 국고채전문딜러 등 일부만 참여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주고받는 거래입니다. 보유 채권을 팔면서 나중에 되사기로 약속하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고, 상대 채권을 사면서 나중에 되팔기로 약속하면 자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법률 형식은 매매지만 실질은 담보부 대차입니다. 집문서를 맡기고 돈을 빌린 뒤 갚으면 문서를 되찾는 구조와 같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이 1977년

2월 증권회사의 채권 보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매입 업무를 시작했고, 그해 말부터 대형 증권사들이 회사채 인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거래를 활용하기 시작해 1980년 2월부터 모든 증권사로 퍼졌습니다. 콜차입 규제 도입 이후 증권사 단기자금 조달의 중심축이 콜에서 이 거래로 옮겨 갔습니다.

전자단기사채는 기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채무증권입니다. 종이 어음 없이 전자 등록으로 발행되므로 절차가 빠르고 분할 양도가 쉽습니다. 콜시장 규제 이후 대체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업어음은 전통적인 단기 조달 수단으로, 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이 거래들을 이어 주는 곳이 자금중개회사입니다. 국내에는 한국자금중개를 비롯한 중개회사들이 있으며, 콜, 담보콜, 환매조건부채권,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 중개 업무를 수행합니다. 매일 수십조원 규모의 단기자금이 이곳을 거쳐 오갑니다.

자금 담당자의 판단은 이 수단들 사이의 조합에서 나옵니다. 오늘 200억원이 부족하다면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로 채울지,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할지, 각각의 금리와 사무 부담과 규제 영향을 저울질합니다. 조달 만기를 짧게 가져가면 금리는 낮지만 매번 다시 조달해야 하는 차환 위험이 생깁니다. 길게 가져가면 안정적이지만 금리가 높습니다. 2026년처럼 금리 상승 전망이 우세한 국면에서는 이 판단의 무게가 커집니다.

● 5-5. 외화 자금 관리와 외환 거래

채용 공고에 외화 자금 입출금과 계좌 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은 최근 몇 년 사이 난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먼저 구조입니다. 증권사는 은행과 달리 외화예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없고 은행 간 대출시장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화 조달을 외환스왑과 통화스왑에 의존합니다. 외환스왑은 지금 원화를 주고 달러를 받았다가 정해진 시점에 반대로 되돌리는 거래입니다. 지금 사고 나중에 파는 방식으로 달러를 조달하고, 만기가 오면 지금 팔고 나중에 사는 방식으로 연장합니다. 국내 증권사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자기자본의 50%로 제한됩니다. 자기자본 1조5,000억원 회사라면 외환스왑으로 조달할 수 있는 외화 한도가 7,500억원 상당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결제주기 단축이 부담을 더했습니다. 미국은 2024년 5월 28일 주식 결제주기를 매매일 다음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줄였습니다. 국내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사고팔면 그 대금을 하루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증시 마감 후 짧은 시간 안에 체결을 확정하고, 국제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마감 시각에 맞춰 달러를 확보해야 합니다.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은 국가 간 시차 때문에 생기는 외환결제 위험을 없애기 위해 수취 통화와 지급 통화를 동시에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에서 원화를 보냈는데 뉴욕에서 달러를 받기 전에 상대방이 파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 도입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결제주기 단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미국 결제주기 단축의 사후 평가와 주요국 대응 동향을 다룬 보고서를 내놓았고, 국내 도입 필요성이 정책 차원에서 언급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도입이 결정되면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시스템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자금 관리 절차가 크게 바뀝니다.

2026년의 고환율 환경은 이 업무의 난도를 더 높입니다.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면 같은 규모의 달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원화가 늘고, 스왑 거래의 담보 관리 부담도 커집니다. 해외주식 거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이 부담은 구조적입니다.

● 5-6.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고객이 증권 계좌에 넣어 둔 돈을 투자자예탁금이라고 합니다. 이 돈은 회사 자산이 아니라 고객 자산입니다. 자본시장법 제74조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파산해도 고객 돈은 보호받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개정 법률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됐습니다.

외화 투자자예탁금에 대해서도 별도예치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해외주식 거래가 늘면서 외화로 남아 있는 고객 자금 규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금 담당자의 업무는 이 별도예치가 규정대로 이루어지는지 관리하고, 예탁금 이용료가 적정하게 산정되어 지급되는지 확인하며, 한국증권금융과 소통하는 일입니다. 이 업무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규정 위반 시 제재로 이어지는 영역이므로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 5-7. 금융기관 계약관리와 업무 협의

채용 공고의 세 번째 업무입니다. 증권사는 여러 금융기관과 다양한 계약을 맺습니다.

은행과는 계좌 개설 약정, 이체 한도 약정, 외환거래 약정, 스왑 거래를 위한 기본계약을 맺습니다. 자금중개회사와는 중개 약정을 맺습니다. 한국증권금융과는 예치와 대출 관련 약정을 맺습니다. 각 계약에는 수수료율, 한도, 담보 조건, 해지 조건, 갹신 시점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계약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세 가지를 뜻합니다. 첫째, 현재 어떤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일입니다. 둘째, 조건을 더 유리하게 바꿀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협의하는 일입니다. 은행 수수료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협상이 연간 수억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갹신 시점을 놓치지 않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업무 협의는 계약 관리의 연장입니다. 결제 처리 방식이나 시스템 연계,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상대 기관과 맞추는 일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 업무에서 요구되는 것은 협상력만이 아닙니다. 상대 기관 담당자와의 관계, 우리 회사의 사정과 상대 사정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 5-8. 신용평가사 대응

채용 공고의 네 번째 업무이며, 회사 상황을 고려할 때 무게가 특히 큰 항목입니다.

신용평가사는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와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의 등급을 매깁니다. 국내에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세 곳이 있습니다. 평가는 연 1회 정기 본평가와 필요 시 수시평가로 이루어집니다.

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사는 회사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무제표와 업무보고서, 사업 부문별 실적,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명세, 요주의이하자산과 총당금 내역, 자본적정성 지표, 유동성 지표, 우발채무 현황 등입니다. 애널리스트가 경영진과 면담하고 질의를 던지며, 그 답변을 바탕으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자금 담당자의 역할은 이 자료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준비해 제출하고, 질의에 대응하며, 회사의 강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리스크관리 부서와 회계 부서에서 자료를 모아 정합성을 확인하고, 항목별로 설명 논리를 준비하는 작업이 됩니다.

이 업무가 왜 전략적인지는 앞서 살펴본 대로입니다.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면 조달금리가 오르고, 일부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며, 유동성 규제 산식에서도 불리해집니다. 현대차증권은 유상증자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등급 강등 방지를 명시했을 만큼 이 사안에 민감합니다. 등급을 방어하는 일이 곧 회사의 조달 환경을 방어하는 일입니다.

2026년 6월 한국신용평가 정기평가에서 등급이 AA- 안정적으로 유지됐지만, 부동산금융의 양적 규모 관리와 건전성 관리가 계속 필요하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요주의이하자산이 늘고 총당금 커버리지가 낮아진 상황에서 이 대목은 다음 평가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5-9. 규제비율 관리 실무

자금 부서의 상시 업무 가운데 하나가 규제 지표 관리입니다. 주요 지표를 정리합니다.

순자본비율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합니다. 최소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에 대응하는 증권사 건전성 지표로, 회사가 파산해도 고객과 채권자를 보호할 만큼의 여력이 있는지 봅니다. 자본 규모가 클수록 유리한 구조여서 대형사 수치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현대차증권은 2026년 3월 말 564.6%, 한국투자증권은 2025년 9월 3,838.96%였습니다. 두 수치의 차이는 회사 위험도의 차이라기보다 자본 규모와 사업 구조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조정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영업용순자본에 차감항목 중 유형자산과 대출채권을 더한 뒤, 총위험액에 차감항목 대출채권의 18%를 더한 값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현대차증권은 2026년 3월 말 241.5%였습니다.

레버리지비율은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상한이 1,100%입니다. 2년 연속 순손실을

내면서 900% 이상이거나 1,100% 이상이면 경영개선 조치 대상이 됩니다. 2026년 3월 말 증권사 평균은 718.3%였습니다.

유동성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으로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2027년 1월부터는 전체 49개 증권사에 적용되고, 할인율과 우발채무를 반영한 신조정유동성비율이 함께 도입됩니다.

자금 담당자의 실무는 이 지표들을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산출하고, 특정 거래가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계산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500억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를 실행하면 유동부채가 늘고 유동자산 구성이 바뀌므로 비율이 움직입니다. 새 규정에서는 담보증권의 종류와 보유 여부에 따라 유출률이 0%에서 100%까지 달라지므로, 어떤 채권을 담보로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이런 계산을 미리 해 두어야 실행 후에 지표가 규제선을 밀도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 5-10. 이해관계자 지도

이 자리가 상대하는 대상을 정리합니다.

사외 상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망 결제와 당좌예금계좌를 담당하는 상대이자 통화정책으로 시장금리를 좌우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 결제와 계좌대체를 담당합니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자예탁금 예치와 유동성 공급을 담당합니다. 자금중개회사는 콜과 환매조건부채권, 전자단기사채 거래를 이어 줍니다. 시중은행은 외화 조달과 환전, 스왑 거래 상대이자 계좌 관리 상대입니다. 신용평가사 세 곳은 등급 평정 상대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 기관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업계 공통 사안을 다루는 기관이며, 현대차증권 대표이사가 2026년 3월부터 회원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사내 상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금융 부문은 딜 자금 집행을 요청하는 상대입니다. 운용 부문은 채권과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자금 흐름을 만들어 냅니다. 리테일 부문은 고객 결제대금 흐름의 원천입니다. 리스크관리 부서는 익스포저 자료를 함께 만드는 상대이자 한도를 함께 관리하는 상대입니다. 회계와 결산 부서는 재무제표를 함께 다루는 상대입니다. 경영기획 부서는 자본 계획과 사업 계획을 조율하는 상대입니다.

이 지도가 보여 주는 것은 이 자리가 조율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채용 공고가 업무 협의와 대외 협력을 명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5-11. 필요 역량

기술과 지식 영역에서는 다음이 요구됩니다. 재무제표를 읽고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능력, 회계 기본 지식, 채권과 외환과 파생상품에 대한 이해, 순자본비율과 유동성비율 등 규제 체계에 대한 이해, 한국은행 금융망과 예탁결제 등 결제 인프라에 대한 지식,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데이터 처리 능력입니다.

관련 자격으로는 투자자산운용사가 널리 활용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며 3과목

100문항으로 구성되고 70% 이상 정답이면 합격합니다. 재무위험관리사는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일정 인원 이상 확보해야 하는 자격입니다. 국제재무분석사와 재경관리사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자격증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실무에 연결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소프트스킬 영역에서는 정확성과 꼼꼼함, 규율성, 책임감, 위기 상황의 판단력, 소통과 조율 능력, 기한 준수 습관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실수가 없다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성실성과 신뢰성이 다른 어떤 역량보다 앞섭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직무는 배움의 곡선이 완만하지만 깊습니다. 결제 절차와 조달 수단, 규제 산식은 몇 달이면 익힐 수 있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는 여러 사이클을 겪어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의 경력자는 오래 남고, 오래 남을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 5-12. 성과 지표와 평가 관점

이 직무의 성과 지표를 명시한 공개 자료는 제한적이므로 업무 성격에서 추론합니다.

정량 지표로는 다음이 후보가 됩니다. 결제 무사고 건수, 즉 결제 실패나 지연이 0건인지 여부입니다. 규제비율의 안정적 준수, 즉 순자본비율과 유동성비율, 레버리지비율이 목표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가중평균 조달금리, 즉 회사 전체 조달 비용이 시장 대비 어느 수준인지입니다. 유동성 완충 규모의 적정성입니다.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입니다. 신용등급 유지 또는 개선 여부입니다.

정성 지표로는 다음이 후보가 됩니다. 적시 조달을 통해 영업 부문의 사업 기회를 뒷받침했는지, 시장 급변 상황에서 대응이 적절했는지,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했는지,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했는지입니다.

이 지표들의 특징은 잘했을 때 눈에 띄지 않고 못했을 때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날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한 번 실패하면 모두가 압니다. 이런 성격의 업무에서는 평가가 성과의 크기보다 사고의 부재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꾸준한 성향의 사람이 오래 성과를 냅니다.

● 5-13. 하루, 한 달, 1년의 업무 리듬

하루 단위로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전날 미국 증시 마감에 따른 해외주식 결제 자금과 환율을 확인합니다. 미국 결제주기가 1영업일로 줄어든 뒤 이 확인이 하루를 여는 첫 관문이 됐습니다. 국내 시장이 열리기 전에는 회사의 당좌예금 잔액과 그날 예상되는 자금 흐름을 정리합니다. 기업금융에서 오후에 집행할 자금이 있다는 통보가 오면, 리테일 결제대금 유입 예상액과 합쳐 순포지션을 계산합니다. 부족할 것으로 보이면 자금중개회사를 통해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나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조달 계획을 세웁니다.

장중에는 한국은행 금융망을 통한 결제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콜과 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합으로 조달을 실행합니다. 동시에 각 거래가 순자본비율과 유동성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합니다. 신용평가사나 은행에서 문의가 오면 응대합니다.

오후 늦게는 그날의 자금 포지션을 마감하고, 여유자금이 남으면 익일물로 운용합니다. 원화와 외화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고, 다음 날 만기가 돌아오는 외환스왑 연장을 은행과 협의합니다.

한 달 단위로 보겠습니다. 월말과 월초에는 결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규제비율을 산출해 보고합니다. 월 중 조달 계획을 점검하고, 만기가 물린 구간이 있으면 분산 방안을 검토합니다.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온 금융기관과 협의를 진행합니다.

1년 단위로 보겠습니다. 연초에는 연간 자금 계획과 조달 계획을 수립합니다. 회사의 사업 계획에 맞춰 얼마의 자금이 언제 필요한지 그리고, 그에 맞는 조달 수단과 만기 구조를 설계합니다. 연중에는 신용평가사 정기 본평가에 대응합니다. 회사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행 시기와 조건을 준비합니다. 규제가 바뀌면 그에 맞춰 시스템과 절차를 정비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초까지는 새 유동성 규제 시행 준비가 큰 과제가 됩니다.

● 5-14. 현대차증권이라는 맥락에서의 특수성

같은 재무 직무라도 회사에 따라 결이 다릅니다. 현대차증권에서 이 자리가 갖는 특수성을 정리합니다.

첫째, 조달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발행어음이 없으므로 회사채, 후순위채,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을 조합해야 합니다. 대형사 자금 담당자보다 다뤄야 할 판단의 폭이 넓습니다.

둘째, 신용등급의 중요도가 높습니다. AA-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조달 환경 유지의 전제이며, 회사가 유상증자로 등급 방어를 명시적으로 목표했을 만큼 민감한 사안입니다. 신용평가사 대응 업무의 비중이 그만큼 큼니다.

셋째, 부동산금융 관련 자료 대응 부담이 큼니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와 요주의이하자산, 총당금이 신용평가사와 감독당국의 주된 관심사이므로,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넷째, 2027년 유동성 규제 전환 대응이 당면 과제입니다. 간접 규율에서 준수 의무로 넘어가는 회사이므로, 준비 작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자산 구성 재검토, 우발채무 관리, 산정 시스템 구축이 여기 포함됩니다.

다섯째, 그룹 계열이라는 배경이 업무에 반영됩니다. 계열사와의 자금 거래, 그룹 차원의 재무 정책과의 정합성, 계열 물량에서 나오는 안정적 예치금 관리가 업무의 일부가 됩니다. 그룹 본체가 비용 구조를 재점검하는 국면이므로, 계열사 재무 부서에도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째, 차세대 원장시스템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시스템이 바뀌면 결제와 정산 데이터의 흐름이 바뀌고, 검증과 병행 운영 부담이 생깁니다.

● 5-15. 종합 해석

재무 직무를 요약하면, 회사가 하루도 결제에 실패하지 않고 규제 기준을 지키며 가장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마련하도록 만드는 자리입니다. 채용 공고의 네 가닥 업무는 따로 떨어진 과업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을 이룹니다. 결제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규제비율을 지키며, 조달비용을 낮추고, 그 결과를 유관기관에 설명해 신뢰를 유지하고, 그 신뢰가 다시 다음 조달을 수월하게 만듭니다.

2026년의 조건은 이 순환의 난도를 높입니다. 금리와 환율이 함께 오르는 국면에서 조달비용과 외화 관리 부담이 커졌고, 거래대금 급증으로 결제 규모가 늘었으며, 2027년 유동성 규제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관리와 신용등급 방어라는 과제가 이어집니다. 회복 국면에 들어선 중형 증권사에서 이 자리가 갖는 무게는 몇 해 전보다 무겁습니다.

■ 핵심 용어·개념 정리

브로커리지(위탁매매): 투자자의 주식 매매를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 수익입니다. 거래대금에 비례하므로 증시 상황에 따라 크게 흔들리며, 2026년 1분기 증권사 이익 급증의 주된 원천이었습니다.

기업금융(IB): 기업의 주식과 채권 발행, 인수합병 자문, 구조화금융,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건당 수익이 크지만 딜 성사 여부에 따라 실적이 출렁입니다.

자산관리(WM): 펀드와 랩, 신탁, 퇴직연금을 판매하고 관리하며 보수를 받는 사업입니다. 브로커리지보다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만들어 중형사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자기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뺀 회사 고유의 밑천입니다. 증권업에서는 이 규모가 영위 가능한 사업 범위를 결정하므로 경쟁 지위를 좌우합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 3조원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지정을 받은 증권사이며 기업 신용공여가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10개사이고 현대차증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발행어음: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하는 어음으로 자기자본의 두 배까지 조달할 수 있습니다. 낮은 비용의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는 통로여서 대형사와 중형사의 조달 격차를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종합투자계좌(IMA):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가 운용할 수 있는 통합 운용 상품입니다. 초대형사만 접근 가능한 영역으로 계단 구조의 최상단을 형성합니다.

순자본비율(NCR):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값을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눈 지표로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증권사 건전성의 대표 지표이며 재무 부서가 상시 관리합니다.

레버리지비율: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며 상한은 1,100%입니다. 자본 대비 과도한 외형 확장을 억제하는 장치입니다.

유동성비율: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으로 단기 지급 능력을 봅니다. 2027년 1월부터 전체 49개 증권사로 적용이 확대되며 산정 방식도 정교해집니다.

신조정유동성비율: 유동자산에 자산별 할인율을 적용하고 유동부채에 우발채무를 더해 산출하는 새 지표입니다. 지표는 정상인데 실제로는 자금이 돌지 않았던 과거 경험을 반영한 장치입니다.

한국은행 금융망(BOK-Wire+):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자금을 실시간으로 결제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시스템입니다. 증권사 자금결제 업무의 기본 인프라이며 채용 공고의 첫 번째 업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콜: 금융회사 사이의 초단기 자금거래로 1일물에서 90일물까지 거래됩니다. 증권사는 빌리는 쪽으로만 참여할 수 있고 한도 규제를 받아 의존도가 낮아졌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RP):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용하는 단기거래입니다. 콜 규제 이후 증권사 단기 조달의 중심 수단이 됐고, 새 유동성 규제에서 담보 종류별 유출률이 적용됩니다.

전자단기사채: 만기 1년 이내로 전자 등록 방식으로 발행하는 단기 채무증권입니다. 발행 절차가 빨라 기업어음을 대체하며 자금 부서의 주요 조달 수단입니다.

외환스왑: 지금 원화를 주고 달러를 받았다가 정해진 시점에 되돌리는 거래입니다. 증권사가 외화를 조달하는 주된 방식이며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자기자본의 50%입니다.

외환동시결제(CLS): 국가 간 시차로 생기는 외환결제 위험을 없애기 위해 두 통화를 동시에 주고받는 시스템입니다. 해외주식 결제주기가 단축되면서 마감 시각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고객이 맡긴 자금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는 제도입니다. 증권사 파산 시에도 고객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의 미래 수익성을 근거로 자금을 대는 방식입니다. 2022년 이후 부실이 확산되며 현대차증권 실적 부진과 자본 확충의 배경이 됐습니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자기자본이익률 제고를 통해 저평가를 해소하려는 정책 묶음입니다. 현대차증권은 2028년 이후 자기자본이익률 10% 이상과 배당성향 40%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 참고 레퍼런스

자본시장연구원 — 2026년 하반기 금융시장 전망과 자산배분 전략 —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26&zcd=002001016&zno=1920&cno=6790

자본시장연구원 — 미국 결제주기 단축(T+1) 사후평가 및 주요국 대응 동향 —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26&zcd=002001016&zno=1912&cno=6758

자본시장연구원 — 2026년 증권산업 주요 이슈 —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cno=6714

금융위원회 —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추진 —
<https://fsc.go.kr/no010101/86917>

금융위원회 — 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 규제 한시적·제한적 유예 —
<https://www.fsc.go.kr/po010105/85231>

한국은행 — 한은금융망 운영 및 지급결제제도 —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727>

한국은행 —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47>

헤럴드경제 — 증권사 1분기 순이익 4조3271억,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70115>

뉴스핌 — 올해 1분기 증권사 순익 4.3조, 순자본비율·레버리지비율 현황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611000842>

머니투데이 — 종투사 유동성비율 100% 규제, 모든 증권사로 확대(할인율 세부) —
<https://www.mt.co.kr/stock/2026/05/18/2026051810114124810>

이지경제 — 현대차증권, PF 축소에도 건전성 지표와 총당금 커버리지 점검 —
<https://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241>

시사저널e — 현대차증권 퇴직연금 업계 4위 및 비계열 실적 확대 —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155>

딜사이트 — 2026년 상반기 증권업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
<https://dealsite.co.kr/articles/165669>

인사이트코리아 — 배형근 현대차증권 대표의 체질개선 성과와 AI 전략 —
<https://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359>

현대자동차 — 핵심가치와 일하는 방식, 10가지 Hyundai Way —
<https://www.hyundai.com/kr/ko/info/ideology/main-value>